



제주지부

사업·서무·검사소

어느새 거리가 저물어간다.
 양쪽에 서 있는 버드나무잎이 자꾸만
 흔들거린다.

벌써 가을. 이 가을엔 뭔가 가슴허전하
 고 모자랐던 부분을 하나씩 둘씩 자꾸만
 채우고 싶어진다.

멀리 한라산이 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듯 살며시 미소 짓고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신비의 섬 제주. 신선이

살았다 해서 3신산의 하나인 영주산 (한
 라산) 이 축복받은 땅에서 일하고 있다
 는데 새삼 가슴벅참을 느낀다.

지부의 아침!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면 과연
 우리 지부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직원은 몇명 없
 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여 오늘 하루
 의 일을 알차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 화

합의 힘이 얼마나 필요하며 위대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제주의 수석명사이시기도 하며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이려면 아마도 김병기사무국장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다.

업무에 대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항상 최대의 성의를 보이라”고 하실때는 조금의 빈틈도 없으시다. 그런 반면 아버지처럼 인자하시고 격려도 아끼지 않으시는 김 병기사무국장님.

우리지부의 일꾼 한남석씨는 사업과, 서무과책임을 맡고 동분서주 하시면서도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 주신다. 또한 “남보다 앞서려면 항상 한발자국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모르는게 있어 여쭙어 보면 언제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더불어 자신감과 용기도 넣어 주신다.

업무초년생인 성 영실씨는 입사한지 겨우 15일. 선배들의 했던 업무를 파악하고, 경리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 가는줄 모른다고.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오늘도 규정집을 보고 있는 정 호선씨. 해병대 출신답지 않게 온순하고 일처리를 위해 사내에 매달리는 시간이 제일 마음 뿌듯 하다고 술좌석에서 간접(?). 아직 미혼인 정 호선씨 옆에 설 분은 아름답고 훌륭한 분일것 같다는 생각이다.

지난 9월 8일 민경이의 첫 생일을 지내곤 늘 싱글 벵글 하는 강 영철씨 하루의 바쁜업무를 보내고 고달팠던 일들도 민경이를 보는 순간 전부 없어진다고 은근히 딸자랑이다.

일할땐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들린다는 고 승구씨. 내원자를 앞에 앉혀 놓고 상담하시는 모습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적당할까...

그러나 밖에서 소주라도 한잔 드실때는 속전속결의 원칙을 내세우곤 제일 먼저 취해서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두얼굴의 사나이를 보는 듯 하다.

우리지부의 막내둥이인 양 은숙양. 그많은 검사자들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통보 하느라 시간을 잊고 산다. 긴머리에 작은손과 통통하고 귀여운 얼굴. 책상에 앉아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막내임을 잊게 한다.

유모어가 풍부해 검사소 직원들을 즐겁게 해주는 강 경민씨.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지만 어디서 저런 익살스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사뭇 궁금하다.

놀때는 신나고 즐겁게, 일할때는 아무지게~라는 화끈한 강 경림씨.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옹고 그림을 확실히 하고 끊고 맺는게 정확하다.

우리는 언제나 한가족. 지부의 발전을 향해 전직원은 오늘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한 가족.

지부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사업목표량 달성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전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란 확신이 선다.

(한남석)